

에너지節約 86년까지 1조원

에너지節約 대책회의 보고

全斗煥 대통령은 지난 6월 29일 청와대에서 崔東奎 동자부장관으로부터 에너지소비절약추진계획 및 석유위기시 에너지감축대책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경제단체 및 기업체대표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대책회의에서 崔동자부장관은 『오는 86년까지 에너지 1조원 절약목표를 위해 산업부문에서는 시설개체와 연료대체, 열병합발전의 확대를 통해 8천 5백66억원, 가정·상업부문에서는 주택단열, 설비보완, 절전제품보급의 확대를 통해 8백17억원, 수송부문에서는 차량교체, 대중교통수단의 확대 등을 통해 6백49억원을 각각 절약하겠다』고 보고했다.

崔장관은 또한 에너지 소비절약에 대한 범국가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할 대상」과 「자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대상」으로 구분, 정부에서는 20개 중앙부처, 13개 시도, 인구 30만 이상의 9개 시와 25개 정부투자기관을, 그리고 기업에서는 1백20개 에너지다소비업체, 7개 주요그룹기업, 20개 시범중소기업, 25개 주요공단을 적극권장대상으로 하고, 그밖의 부처와 업체는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崔장관은 또 산업체의 에너지절약을 원천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사용계획 검토대상을 종전에는

연료를 연간 석유환산 1만톤 이상 사용하는 공장에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5천톤 이상 사용하는 공장도 포함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겸토방법도 신고제에서 승인제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油公등 5개 에너지업체가 자체 에너지소비절약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石油수요억제 실제연습

8月중에 실시예정

정부는 세계석유위기에 대비, 영업용 택시와 관용·자가용 승용차의 운행을 대폭 제한하고, 주유소 및

충전소의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등 석유수요억제를 위한 실제연습을 오는 8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다.

동력자원부가 마련한 「세계석유위기에 대비한 석유수요억제연습계획」에 따르면, 휴르무즈해 협의 봉쇄로 세계석유위기가 발생할 경우를 가정, 이에 대비키 위해 실제연습과 도상연습 등 2 가지 석유수요 억제연습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실제연습내용을 보면, 영업용 택시의 경우 ▲회사 및 한시택시는 현행 부수제의 3분의 1 감축운행 ▲개인택시는 2부제 운행 ▲콜택시는 격일제 운행을 실시, 전체로 33% 감축운행 한다.

대륙붕 5小区 시추실패

6월 21일 폐정

韓日대륙붕 공동개발구역 제5小区에서의 시추작업이 유징을 발견하

LPG 石油사업기금 대폭인상

톤당 188달러에서 260달러로

동력자원부는 지난 6월 18일자 정부고시를 통해 국제LPG 가격 하락과 정유사들의 고정비부담완화등을 감안, 이같이 기금징수액을 인상하고 기준가격 이하로 수입되는 LPG에 대해서는 그 차액의 60%를 비축기금으로 추가징수토록 했다.

이에 따라 석유안정기금 톤당 1백달러, 개발 및 비축기금 톤당 88달러 등 1백88달러로 돼 있던 석유사업기금은 석유안정기금 1백달러, 개발 및 비축기금 1백60달러 등 모

두 2백60달러로 인상되어 개발 및 비축기금이 크게 늘어났다.

또 동자부는 원유의 장기안정확보를 위해 현물시장 원유도입비중을 총도입물량의 20%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시가격과 현물시장가격의 차액을 모두 석유안정기금으로 징수키로 했다.

현재 원유의 공시가격은 아라비안 라이트 기준으로 배럴당 29달러인데 비해 현물시장가격은 28달러 20센트 내외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 못한채 또 실패로 끝났다.

동력자원부는 지난 6월 22일 제주도 남방 3백30km 지점의 韓日대륙봉 공동개발구역 제5소구에서 지난 5월 3일부터 21일까지 50일간 총 3천 2백 2m를 시추했으나, 유정을 발견하지 못하고 廢井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석유를 찾는 시추작업은 우리나라 대륙봉에서 11번째, 韓日 공동개발구역에서 4번째 경제성 있는 유정을 발견치 못한채 실패로 끝났다.

揮發油特消費稅 引下계획 類似揮發油 방지위해

政府는 不正석유류제품의 유통을 막고 공정거래에 의한 稅收결합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솔벤트제조업체에 대해 판매경로를 추적할 수 있도록 記帳제도를 확립하는 한편, 挥發油의 特別消費稅도 단계적으로 인하키로 했다.

지난 7월 6일 動力資源部가 商工部, 財務部, 內務部, 治安本部 등 관계부처와 협동으로 마련한 類似揮發油 유통방지대책에 따르면 類似揮發油는 현행 보통 挥發油 가격(1ℓ당 6백60원) 보다 평균 2백원이 쌈데다 제조용 원료의 구입이 쉽고, 특히 제조상 특별한 시설이나 기술이 필요치 않아 그동안 가스노A, MH유, 신나, 첨가제 등의 명칭으로 注油所나 洗車場등에서의 판매가 날로 늘어 이를 강력히 단속키로 한 것이다.

또한 同대책은 1차로 類似揮發油 제조원료인 석유화학제품에 대

해 판매기장제도를 실시하고 石油事業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고쳐 솔벤트를 검사대상품목으로 규제키로 했다.

여진 칼텍스회장 내한 湖油와 업무협의차

H.V.여진 칼텍스회장과 S.S.밀러 수석부사장이 합작선인 湖南精油와 업무협의차 지난 6월 3일 내한했다.

여진회장 일행은 6월 7일까지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湖南精油 경영진과 합작투자경영에 관한 제반문제를 협의하고 또 申병현부총리, 崔東奎동자부장관, 具자경 력기금 성그룹회장 등을 예방, 최근의 국내외 석유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湖油 麗水공장 정기정비

5월 21일부터 13일간

湖南精油 麗水공장은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2일까지 13일간에 걸쳐 각 장치에 대한 정기정비작업을 실시했다.

연인원 5천여명이 동원된 이번 정비작업에서는 廢가스 연소탑 윗부분과 스팀 링교체작업과 비스브레이커工程을 위한 타이인포인트(비스브레이커工程과 기존시설간을 연결하는 준비작업) 및 가열로와 연료가스 및 플레이어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가 실시되었다.

성운물산 유조선도입 京仁 원유수송 전담

한국화약그룹의 성운물산은 日本으로부터 유조선 아스트로 페가수스号를 도입, 지난 6월 1일 京仁에너지 仁川부두에서 관선식을 가졌다.

성운물산이 8백여만달러에 도입한 이 유조선은 7만9천톤급으로 앞으로 京仁에너지 소요 원유수송을 전담하게 된다.

윤활기유供給価 인하 雙龍 7월 1일자로

雙龍精油는 지난 7월 1일자로 고급윤활기유가격을 평균 6.5% 인하했다.

雙龍精油에 따르면, 이번 인하조치로 현재 배럴당 92달러 22센트가 86달러 27센트로 5달러 95센트가 내렸는데 이 가격은 싱가포르고시 수입가격보다 34센트가 낮은 것이다.

연차정비「45일작전」전개 雙龍 7월 말까지

쌍용정유 온산공장은 6월 15일부터 84년도 연차 정비·보수를 위한 공정별 「셧다운」(Shut Down)을 실시하고 이달 31일까지 45일간으로 예정된 정기 보수작업에 착수했다.

올해 연차 보수작업은 윤활기유 시설과 정유시설의 전체공정에 대한 정비·보수작업은 물론 이 기간중

□ 石油業界消息 □

윤활기유 생산공정의 1·2차 수소 첨가틸 유공정의 반응기 촉매교환 작업을 병행, 실시하므로써 81년초 상업가동 이후 최대규모의 정기 보수 작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출하업무 온라인·시스템 쌍용 패시밀리도 신설

쌍용정유는 7월 1일자로 제품출하 관리업무를 온라인·시스템화 함으로써 대고객 서비스에 혁신을 기했다.

이번 온라인·시스템의 가동에 따라 고객으로부터의 주문 및 제품출하 관련업무가 보다 신속·정확히 처리되는 것은 물론, 본사(IBM S/38)와 공장(IBM S/34) 간의 재반 데이터 교환 및 프로그램의 중계도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사무 자동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5월초부터 시험가동해온 패시밀리도 6월 2일부터 정상 가동을 시작함으로써 본사·공장간의 업무연락이나 정보교환에 보다 신속성을 기하게 되었다.

쌍용정유 金·銀상 휩쓸어 그룹 품질관리 대회서

쌍용정유는 제 6회 쌍용그룹 공장 새마을 품질관리분임조 발표대회에서 금상을 은상을 휩쓸었다.

6월 13일 쌍용빌딩 18층 대강당에서 열린 발표대회는 전국 각사업장별로 예선을 거쳐 올라온 12개 분임조가 경합을 벌였는데, 온산공장 정유생산부 경유과 거북이 분임조가 영예의 금상을, 윤활생산부 윤활유

1과 코끼리 분임조가 은상을 차지했다.

금상을 수상한 거북이 분임조는 「감압증류공정의 탑정경질유(塔頂輕質油)의 고가 제품화」를 주제로, 은상을 수상한 코끼리 분임조는 「진공 증질유 스트리퍼 보조탑 운전비용 절감」이란 주제를 각각 발표하여 이같은 성과를 올렸다.

張洪宣社長 원호성금 2천 3백만원 기탁



張洪宣 극동석유 사장은 원호성금을 맞아 지난 6월 15일 원호성금 2천 3백만원을 문화방송국(MBC)에 기탁했다.

極東 하계휴양소 설치

몽산포해수욕장에

極東石油는 종업원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지난 7월 16일부터 몽산포해수욕장에 하계휴양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 하계휴양소는 오는 8월 15일 까지 1개월간 운영되는데 회사에서 교통편의를 제공하며 숙박비의 일부도 부담하고 있다.

한편 極東石油는 서울시내와 청평소재 수영장의 이용편의도 제공하고 있다.

간부직원 종합건강진단

極東, 전액회사부담

極東石油는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지난 6월 13일부터 25일까지 고려병원 종합건강센터에서 간부직원들에 대한 정밀종합건강진단을 실시했다.

올해로 세번째가 되는 이번 종합건강진단의 비용은 회사에서 전액부담했다.

興國商社 본사이전

광희빌딩으로

興國商社는 지난 6월 23일 본사를 서울 중구 광희동 216 광희빌딩으로 이전했다.

새 전화번호는 다음과 같다.

▲대표전화=273-9251

▲직통전화=273-9225(서울지사)

273-9226(특수제품판매부)

273-9227(윤활유판매부)

都市ガス協会 현판식

正友빌딩에서

韓国都市ガス協会는 지난 6월 27일 종로구 도렴동 正友빌딩에서 李鳳瑞동자부차관, 張炯泰회장 등 관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갖고 업무를 개시했다.

새 會長에 朴炳求씨

潤滑油工業協會

韓国潤滑油工業協會는 지난 7월 2일 임기만료된 宋振煥회장 후임에 朴炳求 모빌코리아 潤滑油工業(株) 회장을 선임했다.